

오늘
실습
완료

윤규준·이건표·하도경

강릉종합사회복지관

동계 실습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윤규준·이건표·하도경

차례

머리말 -----	5
제1장 수료사 -----	6
이건표 실습생 -----	7
윤규준 실습생 -----	9
하도경 실습생 -----	10

제2장 실습이야기

2-1 사전 팀별 OT 및 교육

- 마을 이음 1,2팀 OT 및 교육 -----
- 마을 돌봄팀 OT 및 교육 -----

2-2 성장 워크숍

- 복지요결 마인드맵핑 -----
- 비전, 강점, 사업 워크숍 -----

2-3 사례실습

- 모의사례실습 -----
- 초기상담 -----

제3장 단기 사회사업

- 사업 소개 -----
- 단기 사회사업 준비(주민 만나기) -----
- 단기 사회사업 진행 -----
- 단기 사회사업 평가 -----

맺음말 -----

머리말

우리는 실습을 통해 ‘돕는다’는 말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 표현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기 이전에, 이미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곁에서 잠시 함께 걸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강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현장 체험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장수식당에서 나누는 짧은 인사, 회의 자리에서 오간 한 마디의 말, 팀별 OT 속에서 이어진 이야기들은 모두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어떤 태도로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세 명의 실습생이 기록한 이 사례집은 각자의 언어로 쓰였지만,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말의 온도, 관계의 시작, 그리고 연결의 힘.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은 거창한 개입이 아니라, 한 번 더 바라보고, 한 번 더 기다려주는 태도임을 우리는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사례집은 완성된 사회복지사의 모습이 아니라, 고민하고 배우는 중인 실천가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자신을 돌아보며 부족함을 느꼈고, 또 어떤 날은 작은 만남 하나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우리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짧은 실습이었지만, 이 기록들은 우리에게 오래 남을 질문을 남겼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답을 찾기보다는, 사람 곁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실천가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사례집이 그 여정의 첫 페이지가 되기를 바라며 실습을 마무리 합니다.

제1장 수료사

수료사

실습생 이진표

실습을 마무리하는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끝났다’보다 ‘지나왔다’에 가깝습니다. 처음 이곳에 발을 들였을 때 저는 사회복지를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현장은 여전히 두려운 공간이었습니다. 이론으로 배운 말들은 많았지만, 그것을 실제 사람 앞에서 어떻게 꺼내야 하는지는 알지 못한 채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실습 초반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어르신에게 말을 건네는 일조차 조심스러웠고, 관계를 시작하는 방법이 맞는지 계속해서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돕는 사람’이라는 위치에 서 있으면서도, 그 말이 오히려 상대를 대상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장수식당, 주민만나기, 워크숍과 교육을 거치며 저는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란 누군가를 앞서 이끄는 일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 서서 속도를 맞추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주민을 만나는 경험이었습니다. 질문지를 들고 만났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질문의 내용이 아니라 그 순간의 태도와 눈높이였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어르신, 반응이 느린 순간 앞에서 저는 기다리는 법을 배웠고, 그 기다림 속에서 관계는 조금씩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지 실천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함부로 좁히지 않는 일이라는 것도 함께 배웠습니다.

워크숍과 프로포절을 준비하는 과정은 제 생각을 다시 보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머릿속에서만 그리던 기획이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조금씩 달라졌고, 당연하다고 믿었던 생각들이 질문 하나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함께 고민하며 방향을 맞춰 가는

경험 속에서 혼자 잘하는 것보다 같이 만들어 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어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냐고 물어본다면 ‘잘해 보이려는 사회복지사’ 보다는 ‘같이하려는 사회복지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빨리 해결하는 사람보다는, 당사자의 곁에 조금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직은 많이 서툴지만, 실습 동안 고민하고 흔들렸던 순간들이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도 제 선택을 돌아보게 하는 기준이 되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습 기간 동안 서툰 질문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신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같은 자리에서 비슷한 고민을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낸 동료 실습생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한 달의 실습은 짧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래 남을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수료사

실습생 윤규준

실습을 시작하던 날, 저는 "현장은 다를 것이다"라는 막연한 긴장감을 안고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머릿속에는 많은 이론과 용어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사람을 만나는 순간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이 한 달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사람 앞에 서야 하는가'를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첫날 장수식당에서 배식을 도우며 어르신께 인사를 건네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말 한마디, 눈맞춤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현장에서 느끼며, 관계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민을 직접 만나 필요한 것들을 여쭙보는 활동을 하면서, 질문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건네는 사람의 태도라는 점을 더욱 분명히 느꼈습니다. 경계하시는 어르신 앞에서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법, 대화를 마무리하는 순간까지도 관계를 남기는 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워크숍과 독서모임, 퍼실리테이션 회의를 거치며 제 생각은 계속 넓어졌습니다. 같은 자료를 읽어도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는 과정을 보며, 사회복지의 하나의 정답으로 정리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사람'이 빠진 기획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프로포절을 작성할 때는 프로그램을 나열하기보다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멘토단의 피드백은 제 기획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었고, 그 경험은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처음으로 마주한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례관리와 사회적 고립, 통합돌봄에 대한 교육은 사회복지의 무게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특히 비협조적인 당사자에게도 반복적으로 안부를 묻고, 쉽게 관계를 끊지 않는 태도 자체가 이미 실천이라는 점은 제 관점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결과보다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먼저 선택해야 한다는 말은, 앞으로 현장에서 흔들릴 때마다 저를 붙잡아 줄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화 활동과 그린러너 워크숍, 마을 라운딩을 통해서도 복지가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나뉘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같은 공간을 함께 정리하고,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장면들 속에서, 복지는 관계 속에서 서로의 역할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들은 제가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시선을 더 넓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현장이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앞에서 멈추기보다는, 여기서 배운 태도를 다시 꺼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동계실습은 제게 '완성된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니라, 계속 배우는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는 자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실습 기간 동안 하나하나의 과정을 함께 나눠 주신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끝까지 함께한 동료 실습생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만난 모든 주민과 어르신들께, 제가 사회복지사를 선택한 이유를 다시 확인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료사

실습생 하도경

실습을 준비하던 과정부터 제 마음은 설렘보다 긴장에 가까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면접 날은, 준비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엉키고 순서도 흐트러져서...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스스로, “역시 무리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못했던 건, 이 실습이 제게 단순한 일정이기보다 ‘내가 정말 다시 시작해보는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소개서에도 썼듯이, 내가 고통기식으로 배운 것은 아닌지 확신이 없었고, 무엇보다 실습 현장에는 어린 대학생 친구들도 함께할 텐데 ‘이 아줌마가 그 사이에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나이 차이가 주는 거리감, 속도 차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 시작하기도 전에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한 달 동안 실습에 몰입한다는 건 마음으로도 생활로도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그래도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분명했습니다. 저에게는 가족의 도움과 내 결심이 동시에 필요했던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습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가장 먼저 붙잡은 것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예의 있게 인사하기, 성실하게 기록하기, 모르면 물어보기, 그리고 매일 현장 안에서 한 가지라도 배우기. 저는 스스로 속도가 느릴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대신 꾸준함으로 메우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여기서 민폐가 되면 어떡하지’ 불안해지기도 했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더 기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남기고, 작은 일이라도 책임 있게 하는 것. 현장은 그 기본을 정말 정확하게 요구하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실습을 하며 반복해서 확인한 것은, 사회복지가 결국 ‘사람 앞에서의 태도’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상대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속도를 맞추는 것, 분위기가 흔들릴 때 먼저 의견을 묻고 마음을 확인하는 것, 거절을 억지로 꺾지 않고 존중하는 것, 저는 어떤 순간에 “이걸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싶다가도, 그 과정이 결국 참여자의 안전감이 되고 기관의 신뢰가 된다는 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작은 절차도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고, 기록은 결국 ‘내가 진짜로 현장에서 했던 일’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실습 기간 동안 조금씩 체득해갔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실습 기간 동안 스스로의 ‘가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면접을 맡아먹고 시작한 사람이었고, 나이와 역할 때문에 더 망설였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저는 한 달을 몰입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어떤 날은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 기록을 붙잡고 다시 정리했고, 어떤 날은 “오늘은 그래도 잘했다”는 감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날들이 쌓여 지금의 제게 남았습니다. 한 달 간의 시간이 저에게는 ‘다시 한 번 내 길을 선택해본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서는 실습생이 현장을 배우는 방식이 단순히 ‘시키는 일’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단순히 경험한 것이 아니라 배웠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함께한 실습생 동료들에게도 고맙습니다. 유쾌하고 잘하는 동료들과 함께했기에 실습 분위기도 좋았고 그래서 무사히 이 실습을 끝까지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함도 있었지만 저희들끼리의 “관계”도 좋았기 때문에 저는 두려움을 털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만나 뵈 어르신들과 주민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말 한마디, 웃음, 표정이 제게는 큰 배움이었고, 제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다시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실습을 마치며 저는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는 ‘완벽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배우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 태도를 잃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도망치지 않고, 느리더라도 성실하게,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번 동계 실습은 제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용기를 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장 실습 이야기

2-1. 여기는 강릉 종합 사회복지관입니다.

- 각 팀별 OT 및 분소 라운딩.

복지관 안에는 다양한 사업과 역할이 존재하였고, 각 팀이 추구하는 방향과 접근 방식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흠어짐이 아니라 연결로 이어졌습니다. 각각의 사업은 주민의 일상 가까이에 닿아 삶을 받치고, 때로는 빈틈을 메우며, 서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1) 마을이음 1,2팀 OT 및 교육

마을이음 1팀과 2팀은 복지관의 사업팀으로서, 주민의 일상 속 필요를 발견하고 이를 프로그램과 지역 자원, 관계망으로 연결해 실천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두 팀의 사업은 형태와 주제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지역 안의 흠어진 자원을 관계로 엮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방향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마을이음 1팀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흠어진 마을 자원을 관계로 엮는 데에 중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 데 있기보다, 주민이 서로 연결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환경과 구조를 마련하는 일임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결’의 실천은 공간을 기반으로 더 구체화되었는데, 주문마루센터는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사람과 관계가 흐르는 거점으로 기능합니다. 지역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이 센터는 단순한 공간 운영을 넘어, 주민 참여와 지역 자원이 실제로 연결되는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2023~2024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운영되었다는 흐름은, 지역 기반 사업이 시간을 쌓아가며 자리를

잡아간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윗동네와 아랫동네를 나누어 재난안전지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재난과 기후위기라는 큰 주제가 지역의 골목과 일상으로 내려와, 예방과 대응의 기초로 이어지는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이어 마을이음 2팀 OT를 들으며 복지 실천의 영역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대한 라이프,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강남동 마을관리소, 우리동네 그린러너에 이르기까지, 각 사업은 서로 다른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지역 안에서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우리동네 그린러너’의 플라스틱 방앗간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플로깅이나 수거 보상과 같은 익숙한 방식에서 나아가, 플라스틱을 직접 가공해 공예품으로 만드는 과정은 환경 실천을 캠페인이 아닌 생활기술이자 공동체 활동으로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 ‘아이디어’로 끝나지 않도록, 일상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거점이 강남동 마을관리소였습니다. 강남동 마을관리소는 규모는 작지만 기능은 분명한 공간이었습니다. 공구 대여와 실버카 대여 등 주민의 일상에 바로 닿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대여 기간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없으면 불편한 곳’을 채워주는 생활밀착형 거점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플라스틱 방앗간 공예방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는 점에서는, 하나의 공간이 사업과 연결되어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2) 마을돌봄팀

사례관리는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으로 불리곤 합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론에서는 접수-사정-계획-개입-점검-종결이라는 흐름이 명확하지만, 현장에서는 사람의 삶이 정해진 순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위기가 먼저 터지고, 어떤 경우에는 관계 형성이 사정보다 먼저 필요하기도 하며, 무엇보다 '문제'라고 보이는 지점 뒤에 전혀 다른 삶의 맥락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사례관리는 단순히 서비스를 "연계"하는 일이 아니라, 대상자의 삶을 여러 영역에서 함께 바라보고, 우선순위를 정리하며, 실제로 변화가 가능하도록 관계와 자원을 조정하는 과정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는 늘 여러 요인이 동시에 얽혀 있고, 그 얽힘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상담 기술뿐 아니라 지역 자원에 대한 이해, 행정 절차에 대한 숙지, 그리고 무엇보다 대상자의 선택과 속도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지관 실천의 '가장 사람 가까운 자리'이자 '가장 조심스러운 자리'라는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야 하지만, 함부로 끌어당기면 안 되는 자리. 돕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냉철하게 판단하면서도 따뜻하게 품어야 하는 균형이 필요한 자리. 그 균형이 바로 실천의 전문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통합돌봄지원사업 역시 아직은 낯설게 느껴졌지만, 새로운 제도 변화가 현장에 도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영역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주거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관점은, 겉으로는 하나의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경제, 건강, 주거, 관계, 마음 서로 얽혀 있는 실타래가 있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사례관리는 누군가의 삶을 '정리해주는' 일이 아니라, 함께 들여다보고 함께 조심스럽게 풀어가는 일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통합돌봄이 자리 잡을수록 사례관리의 역할은 더 복합적으로 확장될 것이고, 그만큼 현장의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도 더 깊어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례관리’가 왜 핵심이라고 불리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정해진 답을 찾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관계와 자원을 조율하며, 대상자가 자기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걷는 일. 그 과정이 어렵지만,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실천이라는 점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3) 운영지원팀·노인일자리 OT

운영지원팀은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이지만 무척이나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산과 결산, 품의서와 지출결의서로 이어지는 행정 절차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기관 운영의 신뢰와 책임을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익활동과 역량활용 등 유형별 운영 구조, 그리고 배치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도, 면접을 통한 참여자 선정과 안전전담자 배치 등 제도적 보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일자리 제공을 넘어 안전과 존엄, 삶의 안정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팀별 사업 OT를 들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사업의 종류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주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여러 영역의 실천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계 움직이는 구조. 그 통합성과 연결성이야말로 ‘종합’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 안에는 다양한 사업과 역할이 존재했고, 각 팀이 추구하는 방향과 접근 방식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흩어짐이 아니라 연결로 이어졌습니다. 그 연결의 방향은 기관의 비전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자립을 돕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자조적 조직화를 만들어내며,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실천으로 복지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결국 지역사회로부터 신뢰 받는 기관이 되려는 목표가 팀별 사업 전반에서 공통된 흐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머리는 냉철하게 판단하고, 가슴은 따뜻하게 품어 안으며, 몸은 정열적으로 실천하는 전문 복지인”이라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각 팀별 OT 및 교육은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이 왜 ‘종합’인지, 그리고 왜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할 수 있는지를 납득하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2-2. ‘나의 질문이 우리의 방향이 되기까지’

1) 복지요결 마인드맵핑

본격적인 실습에 앞서 사전과제로 ‘복지요결’을 읽고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실습이 시작된 이후 실습생들과 함께 다시 모여 공유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은 복지요결의 내용을 단순히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워크숍 형식을 통해 복지요결을 바탕으로 나의 가치와 생각을 되짚어 보고, 이를 실습생들과 함께 발표하고 나누는 자리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각자가 사회복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철학을 서로 공유하고,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슈퍼바이저 선생님의 슈퍼비전을 바탕으로 ‘복지요결에서 나만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가장 마음에 남은 문장은 무엇인지’, ‘내가 이루고 싶은 사회복지 실천은 무엇인지’와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각자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실습생 모두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으며, 이후 실습을 바라보는 공통된 기준과 방향을 함께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지요결을 처음 읽었을 때, 새로운 이론을 배우는 책이라기보다는 제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회복지의 의미를 다시 묻는 책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사회복지 실천이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일’이라고 인식해 왔고, 자연스럽게 사회복지를 이야기할 때에도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먼저 떠올려 왔습니다. 그러나 복지요결을 읽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중심에 두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관계 속에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책 전반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지요결은 문제보다 사람을 먼저 보게 하고, 계획보다 관계를 먼저 떠올리게 하며, 성과보다 과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지요결을 정리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복지를 ‘해주는 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반찬을 나누거나,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일은 복지사업이 아니라 당사자의 삶 그 자체이며, 사회복지란 그러한 삶이 가능해지도록 옆에서 거드는 일이라는 설명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 문장을 곱씹으며 저는 사회복지 실천을 설명할 때 사용하던 언어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공’, ‘지원’, ‘개입’과 같은 말들이 혹시 저도 모르게 당사자의 삶을 사회복지의 영역 안으로만 한정 짓고 있었던 것은 아닐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복지요결은 무언가를 더해 주는 복지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삶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 주는 복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복지요결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개념은 ‘당사자의 주인노릇’이었습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묻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늘어나는 것이 곧 발전이라는 문장은 제가 사회복지를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당사자를 존중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더 나은 선택’을 대신 고민하고 그 방향으로 설득하려 했던 것은 아닐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요결에서는 당위성이 충분한지, 그럴 만한 관계인지 먼저 헤아리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은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할 태도가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감각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복지요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은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기’

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연한 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고, 실습생들과 함께 이 문장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 네 가지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묻는다는 것은 관심을 가져야 가능한 일이고, 의논하고 부탁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태도이며, 감사하는 일은 관계를 단순한 수단으로 보지 않을 때 가능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중심으로 나누는 워크숍에서는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의 방식과 태도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졌고, 사회복지 실천에서 관계가 왜 핵심이 되는지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지요결은 복지가 복지로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 의미가 쉽게 와닿지 않았지만,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보이지 않게 돕는다’는 말이 당사자의 자존심과 품위를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움받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설명되어야 할 것이 되고 증명해야 할 것이 되기도 합니다.

복지요결은 그러한 방식이 오히려 당사자의 관계와 힘을 약하게 만들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짚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며 사회복지 실천에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곁에 설 것인가’를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요결을 읽고 정리하며, 그리고 실습생들과 함께 나누는 과정을 거치며 제가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회복지란 누군가를 대신 살아 주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관계 안에서 자리를 만들어 주는 일이라는 생각에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묻고, 듣고, 기다리는 일은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이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요결을 읽고 정리한 이 시간은 제가 앞으로 사회복지에 어떻게 배우고, 어떤 태도로 실천을 고민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기준을 세워 준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 사업 워크숍

우리만의 사업을 결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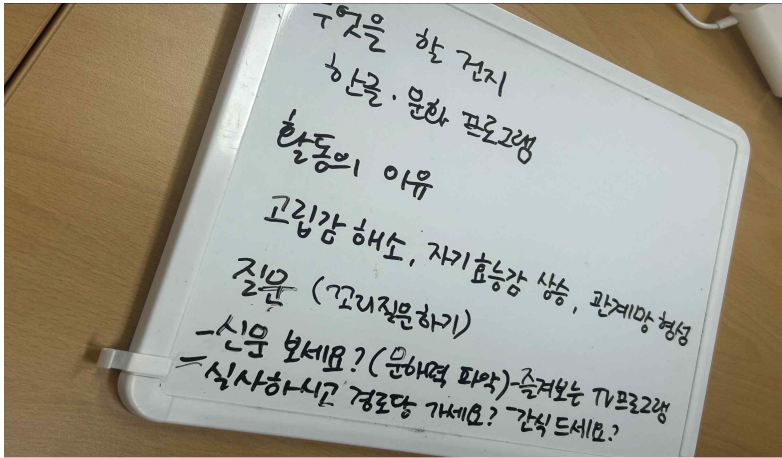


사업 워크숍에서는 실습생들이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하나의 사업을 함께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워크숍에서는 노인의 자기효능감 향상과 삶의 질 증진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노인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창작·여가·놀이 중심의 활동을 고민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의 큰 방향을 정리할 수 있었으며, 이후 진행될 프로포절 작성의 기초를 마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보다 ‘어떤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에 더 집중하였습니다. 실습생들은 노인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작은 성공을 여러 번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보다 참여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 혼자보다 함께 어울려 참여하는 구조, 실패에 대한 부담이 적은 활동을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사진 촬영과 꾸미기, 나만의 달력 만들기, 놀이형 한글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글은 배우는 목표가 아니라, 자기표현과 성취감을 돕는 도구로 활용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한 예산과 시간이 제한된 상황을 가정하여, 그 안에서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를 지킬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거치며 사업은 점차 뚜렷한 방향을 갖추게 되었고, 실습생들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노인이 “나도 할 수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도록 돕는 구조여야 한다는 공통된 생각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 워크숍은 이후 프로포절 작성 과정에서 사업의 목적과 구성, 기획 의도를 정리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간으로 남았습니다.



3) 비전 및 운영 워크숍

비전 및 운영 워크숍은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실습에 참여할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사회는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해진 답을 찾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각자가 살아 오며 경험한 기억과 생각을 바탕으로 저마다의 비전을 꺼내 놓고 서로의 이야기를 이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상적인 마을이란 어떤 곳일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논의는 제도나 시설이 잘 갖춰진 마을을 떠올리는 데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알고 지내는지, 그 관계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데 공감의 모였습니다.

어떤 마을은 예술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주민과 외부 사람이 자연스럽게 오가며 관계를 맺고 있었고, 어떤 마을은 오랫동안 쌓아온 이웃 관계 속에서 서로의 사정을 알고 돕는 문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이야기들은 하나의 생각으로 모아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이상적인 마을이란 문제가 전혀 없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마을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놓인 수저가 하나 더 늘어나는 모습, 아침마다 서로 안부를 묻는 풍경처럼 아주 작고 평범한 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상상은 거창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으며 한 번 더 살펴보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마을에 대한 바람이었습니다. 돌봄이 특정한 사람의 역할이나 희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오가는 관계로 존재하는 마을에 대한 공감의 형성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관계가 개인의 마음이나 선의에만 기대어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누어졌습니다. 공동돌봄이나 마을 활동이 특정 사람에게만 부담으로 쏠릴 경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갈등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갈등을 통해 드러난 부담과 필요를 함께 확인하고 운영 방식과 역할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는 ‘누가 맞고 틀렸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을의 방식을 다시 생각해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이 마을이 오래 지속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잘 안다는 것은 단순한 간섭이 아니라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상적인 마을은 시설이나 제도가 잘 갖춰진 곳기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살아 있는 공간이라는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이어지며,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다시 질문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논의 끝에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 흩어져 있는 자원과 관계를 다시 잇는 존재라는 인식이 공유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실천은 혼자 감당하던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할 문제로 바꾸고, 개인의 어려움을 지역사회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드러내는 일이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역할은 때로는 이웃처럼 곁에 머무르며 함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제도와 구조를 바꾸기 위해 부딪히는 과정, 즉 '싸움'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형태는 달라도, 그 방향은 같았습니다. 사람의 삶이 다시 관계 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없는 지역사회는 문제가 더 늦게 발견되고, 아는 사람만 자원에 접근하며, 그 결과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누어졌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존재가 개인의 삶을 돕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균형과 연결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강점 워크숍

강점 워크숍은 각자 잘하는 것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함께 실습을 해 나가면 좋을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잘하는 실습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살려 같이 움직이는 실습이 가능할지 이야기해 보고자 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먼저 각자가 스스로 생각하는 강점과, 그 강점이 드러났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실습생은 기획 과정에서 먼저 나서 전체 흐름을 잡는 데 익숙했고, 어떤 실습생은 상대의 말을 잘 듣고 분위기를 살피며 대화를 이어 가는 데 강점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실습생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당황하기보다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고, 미리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하는 데 익숙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느낀 점은, 이 강점들이 각자 따로 있을 때보다 함께 연결될 때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획을 잘하는 사람의 아이디어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을 통해 더 부드럽게 다듬어질 수 있었고, 현장을 차분히 살피는 사람을 통해 실제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었습니다. 강점 워크숍을 통해 누군가는 전체 틀을 정리하는 역할을, 누군가는 사람과의 관계를 살피는 역할을, 또 누군가는 현장의 흐름과 반응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이 역할은 누가 더 잘하거나 못해서 나뉜 것이 아니라, 각자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습에 참여하기 위한 방향이었습니다. 또한 이 워크숍은 강점을 '잘한다'는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습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써볼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주민을 만날 때,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각자의 강점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강점 워크숍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잘해야 하는 실습생이 되기보다,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실습생들이 함께 실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2-3. 삶의 연결망을 그린다.

1) 초기상담 역할극

이번 모의 사례실습은 그림 자료와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당사자, 상담자, 관찰 및 기록자의 역할을 나누어 사례관리 과정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쓰레기가 가득한 집, 한쪽 다리에 붕대를 감고 홀로 앉아 있는 노인의 모습, 그리고 누군가를 회상하는 듯한 분위기까지. 그 장면만으로도 이 사례는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건강, 심리사회, 경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얽혀 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역할에 이입하여 말하고 행동하려 하자 생각보다 훨씬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초기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자 역할의 경험으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상담 전에는 인사와 소개로 라포를 형성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가족관계·주거·경제 상황을 차근차근 사정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첫 만남’이 시작되자 준비했던 흐름이 쉽게 흐트러졌습니다. 당사자 역할을 맡은 실습생이 연세가 많고 오랜 고립 상태에 놓인 노인의 모습을 매우 현실감 있게 표현하였고, 경계심이 느껴지는 태도 앞에서 질문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짧게 끊기고 반응이 제한되자, 순간적으로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끊기거나 맥락과 맞지 않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며 흐름을 놓쳐버렸습니다.

이를 통해 사례관리는 ‘준비한 질문지’를 읽는 일이 아니라, 그 순간의 분위기와 당사자의 반응을 함께 읽어내며 대화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돌봄팀 팀장님과 슈퍼바이저 선생님께서 상담자 역할로 개입해서 도와주셨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주민센터 의뢰를 받고 왔다”는 설명을 자연스럽게 넣어 신뢰의 실마리를 만들었고, 그림 속 쓰레기나 지팡이 사용 여부 같은 단서도 무리 없이 질문으로 연결해 나가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묻는 질문이라도 어떤 순서로, 어떤 톤으로, 어떤 맥락에서 꺼내느냐에 따라 당사자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관찰자, 기록자 역할을 수행하며 얻은 배움도 컸습니다. 사례관리는 대화에서 나오는 정보뿐 아니라 당사자의 표정과 자세, 환경에서 드러나는 단서 등 '눈에 보이는 정보' 역시 중요한 사정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모의 사례실습은 즐거운 역할극인 동시에, 첫 만남에서 상담자가 느끼는 긴장과 부담, 그리고 그럼에도 전문성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을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누군가의 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더 안정된 태도로 첫 인사를 건넬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2) 초기상담지 - 사정기록지 작성

초기상담 역할극 이후 초기상담지-사정기록지 작성 작업을 하면서, “적당히 이해했다”는 감각과 “문서로 설득력 있게 정리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걸 체감했습니다. 상담 장면에서는 흐름을 따라가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도 충분히 보였지만, 막상 기록을 쓰려니 근거가 부족한 지점이 드러났고, 빈칸이 눈에 띄었습니다.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문서 안에서는 설명되지 못하고 남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후 강점·자원·한계점을 나누는 작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항목에 맞춰 내용을 채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피드백을 받으면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요소는 단순히 강점 또는 한계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양면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이나 특정 관계는 당사자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과의존이나 갈등의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욕구사정지 피드백을 받으면서는, 욕구사정이 ‘왜 이것이 우선인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비어 있는 영역이 있었던 것도, 사례와 맞지 않는 영역을 억지로 넣었던 것도 결국 형식에만 집중했던 흔적이었습니다. 항목을 채우는 데 그치면 기록은 완성돼 보일지 몰라도, 사례의 흐름과 우선순위가 설명되지 않으니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은 저희에게 ‘상담을 했다는 느낌’에서 멈추지 않고, 그 내용을 근거와 논리로 정리해 당사자 중심의 계획으로 연결하는 연습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이해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사자의 삶이 드러나는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사자와 함께 우선순위를 조율하고, 필요한 자원을 찾아 당사자의 삶에 연결망을 그려주고 싶다는 다짐을 남겨봅니다.

제3장

단기 사회사업

3-1. 사업소개

일시	2026. 1. 28(목). ~ 2. 3(화) 14:00~15:00		담당	윤규준, 이건표, 하도경		
장소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예산	금250,000원(금이십오만원)		
참여자	구분	대상		실인원	연인원	
	노인	꿈글터 한글반 참여자 7명		7	7	
목표	구분	목표		평가방법 (평가도구)		
	성과 목표	프로그램 참여자 간 공동체 강화		단체 인터뷰 진행 (자체 질문지)		
	산출 목표	3건/ 3시간/ 총3회		실습일지		
진행내용	세부활동명	일정	내용		장소	담당
	사전준비	1월 1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와의 워크숍을 통해 실습생 공동의 목표 및 비전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어르신들의 공동체 소속감 증진 - 비전: 팀별 활동을 통한 어르신 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 - 복지관 내 이용자의 욕구 파악을 위한 실행 계획 회의 · 담당자 회의를 통해 방향성 및 사업 전반적인 내용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들 대상으로 트루트 웃놀이와 한글 퀴즈 프로그램 구성 		행복실	윤규준 이건표 하도경

		1월 20일~2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만나기(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과 이용 당사자와의 인터뷰 - 당사자의 복지욕구 확인 - 당사자의 일상생활 파악 · 주민만나기(요양보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의 욕구 파악 													
		1월 2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구조사를 토대로 사업 내용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로트 퀴즈 프로그램 구상 - 우리말 겨루기 프로그램 구상 - 필요한 준비물과 단기사업계획서 최종확인 													
		1월 2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구매 및 프로그램 사전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와 협력 업체에서 물품 구매 · 규칙 설정 및 역할 분담 · 준비물 확인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준비물</th> <th>수량(개)</th> </tr> </thead> <tbody> <tr> <td>명찰</td> <td>7</td> </tr> <tr> <td>보드마카</td> <td>7</td> </tr> <tr> <td>칠판 지우개</td> <td>2</td> </tr> <tr> <td>화이트보드</td> <td>2</td> </tr> <tr> <td>스티커</td> <td>7</td> </tr> <tr> <td>빔 프로젝트</td> <td>1</td> </tr> </tbody> </table>			준비물	수량(개)	명찰	7	보드마카	7	칠판 지우개	2	화이트보드	2	스티커
	준비물	수량(개)														
명찰	7															
보드마카	7															
칠판 지우개	2															
화이트보드	2															
스티커	7															
빔 프로젝트	1															
진행 및 종결	1월 28일	<p><라포형성: 팀 구성 및 담당자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 구성 	복지관 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인 1팀, 4인 1팀 구성 (사다리 타기) - 팀별 멘토 구성 · 이름표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 수행을 위한 팀별 이름표 제작 · 프로그램 설명 및 아이스브레이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생과 당사자의 관계형성 		
		1월 29일	<p><꿈글터 배 트로트 윷놀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준비한 트로트 퀴즈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 대 팀으로 윷놀이 진행 - 미션칸에서 미션 진행 - 미션은 트로트 퀴즈맞추기 (맞출시: 간식 못맞출 시: 뺑도) - 4개의 말이 먼저 도착한 팀이 승리 		
		2월 3일	<p><오늘의 한글왕은 나야 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담, 음식 등의 초성을 놓고 한글 퀴즈를 띄어 놓고 팀별 상의를 통해 정답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이도에 따라 점수 차등 제공 · 종결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수 합산 - 프로그램 전체 점수와 합산 - 점수순으로 이긴 팀 공개 - 시상식 - 승리 팀 상장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감발표 및 마무리 인사 - 종결 꾸러미 전달 - 인터뷰 진행 		

준비사항	구분	내용		비 고	담 당
	준비물	보드마카, 화이트보드, 명찰, 다과, 문구류, 스티커, 다과		-	윤규준 이건표 하도경
	내부협력	담당 사회복지사 및 슈퍼바이저		-	윤규준 이건표 하도경
예산	세목	구분	산출근거	합계	비고
	종결재료	재료	83,000원*1회	83,000	-
	진행재료	재료	83,000원*1회	83,000	-
	다과	재료	4000원*7명*3회	84,000	-
	총계			250,000원	

3-2. “주민이 원하는 것, 지나가는 사람이 아닌 아는 사람이 되기까지”

1) 단기사업준비(주민만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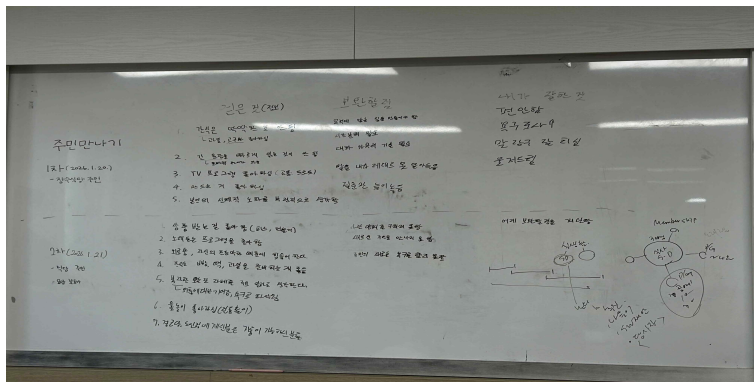
단기사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하게 된 일은 주민을 직접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정하기 전에, 먼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만나기는 단기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이자, 지역 주민과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민을 만나기 전, 실습생들은 이번 만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단순히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이후 진행될 단기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특별한 요구를 묻기보다는, 주민들의 평소 생활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주민과의 만남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는 않았고, 모든 주민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짧게 대답해 주셨고, 어떤 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셨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느껴진 것은, 혼자 보내는 시간이 익숙한 생활이었습니다. 복지관을 자주 이용하고는 있지만, 누군가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주민들의 취향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트로트 프로그램을 즐겨 보거나, 간식으로는 부담 없는 음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보다 더 기억에 남았던 것은,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말을 걸어주는 상황 자체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보다,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주민만나기가 항상 편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주민 앞에서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야 할지 고민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무리하게 질문을 이어가기보다, 같은 공간에 잠시 함께 머무는 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욕구조사는 답을 빨리 얻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시작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주민의 생활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 만남에서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상황에서 편안해하는지, 어떤 활동에 관심을 보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단기사업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요구가 없더라도, 주민들의 생활 속에는 필요한 단서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민만나기를 거치며 단기사업은 주민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형태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별한 설명 없이도 참여할 수 있고, 부담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주민만나기는 뚜렷한 답을 주기보다는, 방향을 잡아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어떤 태도로 주민을 만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얼굴을 알고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관계를 시작하는 것, 그 지점이 단기사업 준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 단기사업진행(놀면 뭐하니?)

“제공자가 아닌 함께하는 사람으로, 너와 내가 아닌 우리로”

‘놀면 뭐하니?’는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함께 놀이와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감각을 회복하고자 기획된 단기사업입니다. 주민만나기를 통해 확인한 어르신들의 일상과 관심사를 바탕으로, 팀을 이루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놀이 활동과 퀴즈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트로트 노래를 소재로 한 윷놀이와 우리말 겨루기 한글 퀴즈 활동은 어르신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웃으며 어울릴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고, 실습생 또한 진행자가 아닌 한 구성원으로 그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경험 자체에 의미를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놀면 뭐하니?’를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어르신들과 실습생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프로그램을 준비한 사람이었고, 누군가는 참여한 사람이었지만, 막상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무언가를 잘 해내야 하는 시간이기보다,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마주한 어르신들의 표정에는 기대와 함께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실습생 역시 긴장한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괜히 어색해질까 조심스러웠고, ‘프로그램을 잘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 앉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간단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이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어르신들의 모습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말을 꺼내며 분위기를 이끌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옆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 차이가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방식으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함께 웃는 순간도 있었고, 답을 두고 한참을 고민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서로의 의견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말하는 장면이 더 자주 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르신들 사이의 거리도 조금씩 가까워졌고, 실습생 역시 어느새 진행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참여자로 그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누가 어르신이고 누가 실습생인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순간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르신들의 표정과 말투에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처음보다 말수가 늘어난 분도 있었고, 옆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활동 자체보다, 그 활동을 매개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어르신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실습생은 이 프로그램이 무언가를 ‘제공’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생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결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특별한 평가나 요구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니다. 대신 “같이 하니까 재미있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들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 시간이 어르신들의 일상에 잠시 스며들었고, 그 자체로 충분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놀이면 뭐하니?’는 크거나 화려한 프로그램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중요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보다, 그 자리에 어떻게 머물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웃고, 같은 문제를 두고 고민하며 보낸 시간은 ‘너와 나’라는 구분을 자연스럽게 지워 주었습니다.

이 단기사업을 통해 실습생은 사회복지 실천이란 누군가를 이끄는 일이기보다, 옆에 앉아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공자가 아닌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경험은, 현장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오래 남을 것입니다.

3) 단기사업평가(사업 마무리)

“이번 만남이 서운함으로 남지 않기를”

‘놀이면 뭐하니?’는 짧은 기간 동안 진행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과 실습생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친해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진행했는지보다, 그 안에서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어떤 관계가 생겼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놀이와 퀴즈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반응하며 가까워지는 도구였습니다.

트로트 율놀이와 한글 퀴즈를 하면서 어르신들은 자연스럽게 팀을 만들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함께 웃었습니다. 어떤 분은 먼저 답을 말하고, 어떤 분은 옆에서 조용히 힌트를 주며 각자의 방식으로 참여했습니다. 활동을 계속하면서 어르신들은 점점 말이 많아지고, 서로를 부르는 말에도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보며, 공동체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풀고 고민하는 작은 순간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프로그램을 돌아보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내용보다 ‘함께 했던 분위기’를 더 기억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이 하니까 좋았다”, “

집에만 있을 때보다 시간이 빨리 갔다"는 말 속에는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만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특별히 새로운 걸 제공해서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원래 가지고 계신 이야기와 웃음을 꺼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할 때는 숫자로만 성과를 정리하기보다, 이 만남이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를 함께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실습생에게는 무언가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르신 곁에서 잠시 함께한 사람으로서의 경험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서로를 다시 보고 연결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와 참여자의 관계는 프로그램이 끝나면 끝나지만, 참여자끼리의 관계는 그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평가는 '잘 끝났다'보다는 '어떻게 남았는가'에 가깝습니다. 만남이 갑자기 끝나서 서운하게 남지 않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좋은 기억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놀면 뭐하니?'는 그렇게, 짧았지만 가볍지 않은 관계의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맺음말

이번 겨울 실습은 '무엇을 잘했는가'를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만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한 달은 책으로 배웠던 사회복지가, 실제 삶 앞에서는 얼마나 조심스럽고 세심해야 하는지 깨닫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현장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모두 긴장하고 두려웠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보다, 혹시라도 상처를 주지는 않을지, 관계를 망치지지는 않을지 더 많이 걱정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불안은 곧 질문이 되었고, 그 질문은 이 실습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실습하는 동안 우리는 복지관의 여러 팀과 함께하며 지역과 사람, 그리고 제도를 연결하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했습니다.

마을이음팀과 마을돌봄팀, 운영지원팀, 노인일자리 OT를 통해 복지관이 단순히 서비스를 주는 곳이 아니라, 삶의 여러 부분을 이어주는 곳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또한 복지요결 마인드맵, 비전·강점·사업 워크숍, 모의사례실습, 기록 작성과 피드백 과정을 거치며, 말보다 태도가, 계획보다 관계가 먼저라는 사실을 직접 느꼈습니다.

특히 단기 사회사업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주민을 만나 관계를 시작하고, 트로트 율놀이와 한글 퀴즈를 함께하며, '도와주는 사람'이 아닌 '함께하는 사람'으로 같은 자리에 앉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시간은 결과보다 과정이, 성과보다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 우리가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사회복지의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방법보다, 그 질문을 어떤 마음으로 건네는지가 더 중요했고, 빠른 해결보다도 오래 곁에 머무는 태도가 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례관리와 통합돌봄, 기록과 행정, 주민 조직화의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의

'문제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관계와 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함께 묻고, 기다리고, 다시 연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집은 완성된 결과가 아니라, 흔들리고 배우며 성장하는 과정의 기록입니다.

각자의 말과 속도는 달랐지만, 한 가지 방향은 같았습니다.

사람을 문제로 보지 않고, 관계 속의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 머무는 사람으로 서고자 했던 저희 실습생들의 고민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짧은 실습이었지만, 이 기록은 우리에게 오래 남을 질문을 남겼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 곁에 서고 있는가?"

이 질문은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계속 우리를 붙잡아 줄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희 실습생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한 달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완벽한 사회복지사가 되기보다, 계속 배우는 사람으로 남고자 합니다.

빠르게 해결하려 하기보다,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설명하기보다, 먼저 듣고, 앞서가기보다, 옆에 서는 태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강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배운 이 마음을 품고, 사람의 삶이 다시 관계 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실습
완료